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점등식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의 봉축점등식, 여수불교사암연합회의 점등법회, 강릉불교사암연합회의 봉축탑 점등식, 대구불교총연합회의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점등식, 충청북도불교총연합회의 부처님오신날 기원법회.

지혜·자비 등불, 전국 곳곳서 불 밝히다

전국 불교단체,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 봉행

홍승도 · 양행선 · 조동제 유재상 · 김선행 · 이동격 지사장

부처님오신날이 한 달 여 남은 가운데 전국 불교단체들이 봉축점등식을 열고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호 스님)가 용인연등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봉축점등식을 4월 25일 용인시청에서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와 용인불교전통문화보존회가 공동 주최했다.

회장 정호 스님은 점등사에서 "올해 봉축표어인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처럼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새겨야 한다"며 "갈등과 대립, 분열과 분별을 딛고 화합으로 나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용인 곳곳을 밝히게 될 연등의 빛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희망의 등불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를 밝게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화평·경우·연수 스님)는 4월 25일 전주역 앞 마중길 분수대에서 전북불교의 중흥과 지역사회 상생을 기원하는 봉축기원탑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공동봉축위원장 경우 스님(선운사 주지)은 봉축사를 통해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 세상은 평안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화합의 길이 열린다"고 당부했다.

공동봉축위원장 화평 스님(금산사 주지)은 축사에서 "오늘 밝히는 등(燈)은 마음속 탐진치 삼독을 걷어내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날 점등된 기원탑은 익산 미륵사지 동탑의 5분의 1 크기로 전주 한지를 사용해 제작됐다. 사부대중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봉축 주제를 외치며 점등 버튼을 눌렀다. 이어 석가모니불 정근 속에 연등을 들고 첫 마중길을 돌며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했다.

순천불교연합회(회장 효광 스님)는 4월 26일 순천 조례호수공원에서 '순천 연등회 &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봉축행사는 4월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통등 만들기 콘테스트, 축하무대, 보물찾기 및 체험 프로그램, 법요식과 제등행렬,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지며 시민 참여형 축제로 진행됐다.

연합회장 효광 스님은 봉행사에서 "순천이 복지와 교육, 생태가 어우러진 도시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불교는 연대와 공감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한 쉼터이자 마음 돌봄의 공간이 되겠다"며 "어려운 이웃과 청년들을 향해 자비행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수행공동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여수불교사암연합회(회장 연규 스님)는 4월 29일 여수시청 3층 대회의실과 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했다.

이날 법회는 용문사 신도들의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불교의례, 봉축법어, 봉축사, 발원문, 관불의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여수시청 앞 로터리에 조성된 봉축탑 점등이 봉행됐다. 봉축탑은 미륵사지 9층 석탑을 형상화해 조성됐다.

연합회장 연규 스님은 봉축사에서 "부처님의 탄생은 모든 존재가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일깨우고, 수행과 실천을 통해 해탈과 평등을 이루라는 가르침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불자들이 자비를 실천하고 보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함께 나누게 된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는 4월 24일 북구 우산근린공원에서 '북구 봉축탑 점등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관음사·증심사 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불교의례, 봉행사, 봉축사, 축하공연, 점등식, 탑돌이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전통 한지로 재현한 성덕대왕신종에 불을 밝히고 북구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발원하는 탑돌이를 펼쳤다.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는 전쟁과 갈등 속에 놓여 있지만 이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자비를 확산할 때 비로소 화합과 평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릉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설암 스님)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 25일 강릉 옥천오거리 광장에서 '2026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자와 시민 등 400여 명이 동참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릉불교사암연합회 고문 청우 스님은 법문에서 "불안한 정세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부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겨내야 한다"며 "오늘 밝힌 봉축탑을 보며 늘 부처님을 기리는 마음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지혜 스님)는 4월 24일 속초광장에서 봉축 점등 대법회를 봉행했다. 설악산 자락을 배경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지역 불자와 시민, 관광객 등 800여 명이 동참해 자비광명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은 법어를 통해 "하심하는 자에게 만 가지 복이 돌아온다"고 강조하며 "늘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면서, 탐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 놓으면 복이 절로 찾아 온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설했다.

대구불교총연합회(이사장 선광 스님)는 4월 25일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점등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봉축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사부대중과 시민들이 함께한 이날 점등식은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봉행사, 발원문, 봉축사, 법어, 점등 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대형 석가탑 형상의 장엄등이 설치돼 점등과 동시에 형형색색의 빛을 발하며 대구의 밤하늘을 수놓았다.

점등식에서 대구불교총연합회 이사장이자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선광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상생의 길을 당부했다. 선광 스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밝히는 등불이 곧 세상을 밝히는 지혜와 자비의 빛이 된다"며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영천불교연합회(회장 지봉 스님)는 4월 22일 영천강변공원 분수광장에서 '영천연등문화축제'의 일환으로 봉축점등식을 개최했다.

연합회장 지봉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치유, 화합, 발전'을 강조하며 "오늘 밝히는 이 등불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아픔과 갈등을 씻어내는 '치유의 등불'이자 서로를 인정하는 '화합의 등불'"이라며 "연등의 온기가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고 우리 공동체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발전의 길잡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성로 스님은 총무국장 선웅 스님이 대독한 봉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탄생은 모든 존재가 존귀하며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일깨워 준 사건"이라며 "고통의 원인과 극복의 길을 밝힌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충청북도불교총연합회(회장 정덕 스님·법주사 주지)는 4월 29일 청주 엔포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부처님오신날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회장 정덕 스님은 봉축사에서 "지금은 세계와 사회, 나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종교가 하나 되어 국민과 국가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로, 자비와 지혜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와 배려를 실천할 때 더욱 단단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청북도불교총연합회장 정덕 스님과 부회장 각연 스님, 청주불교방송 사장 현진 스님, 지역 사암연합회 회장 스님들을 비롯해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신병대 청주시장 권한대행, 송재봉·이강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부여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덕 스님)는 4월 25일 부여경찰서 앞 로터리에서 연등 점등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탄생을 기리는 자비와 지혜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눴다.

점등식은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으로 시작해 합장 기도와 아기 부처님 봉축등 점등으로 이어졌다.

회장 정덕 스님은 점등사에서 "연등은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이며 자비의 상징"이라며 "도심 속에서 밝힌 이 불빛이 서로를 향한 배려와 나눔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속초 보광사 '예인 장홍심' 위패 봉안

4월 25일 지장전서 봉행
"잊힌 예인 장홍심 재조명"



속초 보광사는 4월 25일 지장전에 장홍심 예인의 위패를 봉안하고 헌무 공연을 개최했다. 사진은 보광사 회주 석문 스님과 장홍심무용연구회 최선일 · 이지현 공동회장, 무용가 이철진 씨가 위패를 지장전에 봉안하는 모습.

근현대 전통춤의 명무(名舞) 고 장홍심 예인을 기리는 위패가 속초 보광사에 봉안됐다.

속초 보광사(회주 석문 스님)는 4월 25일 지장전에서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장홍심 예인의 위패를 봉안하고, 그의 예술세계를 기리는 헌무 공연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석문 스님을 비롯해 일광 스님, 민호 스님의 집전으로 최선일 동북아미술연구소장(장홍심무용연구회 공동회장), 이지현 장홍심무용연구회 공동회장, 이철진(한영숙류 승무 춤꾼), 이용덕(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이수자), 송미숙(국가유신진흥원 예술단 감독) 등 무용가 후학들 2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석문 스님은 "구국 항일 의승들의 위패를 모신 보광사에 실향민이자 무연고인 장홍심 예인의 위패를 모시게 된 것은 해주 출신 실향민으로 보광사를 중창한 이순덕 보살과의 인연이 만든 결과"라며 "후학들의 정성과 원력이 부처님의 자비와 만나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최선일·이지현 장홍심무용연구회 공동회장은 "바라승무와 검무를 독자적 예술로 완성했음에도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장홍심 예인을 부처님 품에 모실 수 있게 되어 보광사 석문 스님께 감사드린다"며 "후학들은 흩어진 기록을 발굴하고 예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패 봉안식에 이어 행장 발표, 장홍심 일대기 봉정식과 추모공연이 이어졌다. 공연에서는 이철진의 살풀이, 이용덕의 함흥검무, 송미숙의 바라승무가 펼쳐져 장홍심 춤의 맥을 되새겼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당 원행 대종사 49재 엄수

4월 29일 월정사 적광전서
500여 대중 "속환사바" 발원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월정사 선덕 자광당 원행 대종사의 49재 막재가 4월 29일 월정사 적광전에서 엄수됐다.

49재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 원로회의 부의장 보선 대종사, 원로의원 일면 대종사, 월정사 회주 현해 대종사,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대종사, 전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월우 스님, 전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지현 스님, 나눔의집 대표 세영 스님(수원사 회주),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해 원행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원로의장 자광 스님은 "모든 일에 물러섬이 없으셨던 스님이셨다.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그 모습, 모두가 기억하고 기려야 한다"고 추모했다.

원로회의 부의장 보선 스님은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바른 길을 가도록 힘써야 한다. 스님은 속히 사바세계로 다시 오시어 '월정사 멍청이' 노릇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추도사를 대신했다.

문도를 대표해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스님의 가시는 길에 함께해 주신 종단 어른 스님들과 종단 스님들, 본말사 스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대산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스님을 기리며 문도들은 못다하신 원력을 잘 받들고 이어가 조계종풍이 더욱 빛나도록 힘쓰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천안 고불사, 장애인단체에 자비 나눔

4월 29일, 쌀 1000kg 전달



천안 고불사(주지 혜월 스님)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지역 장애인단체에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고불사는 4월 29일 경내에서 백미 20kg 50포, 총 1000kg을 전달했다.

주지 혜월 스님은 "신도들의 정성이 모인 이 쌀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마이산 탑사 병오년 산신대재

4월 25일 경내 특별법단서



진안 마이산 탑사는 4월 25일 경내 특별법단에서 산신대재와 봄 천지기도를 봉행했다.

이날 마이산 탑사와 (사)붓다봉사단은 ㈜복성산업개발의 후원을 받아 이웃사랑 백미 10kg 300포(3000kg)를 진안군에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국불교대학, 봄 수계법회

4월 25일, 650명 동참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회주 우학 스님)가 4월 25일 옥불보전에서 '불기 2570년 금강계단 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전국 10개 도량과 유튜브 불교대학을 통해 동참한 불자 등 650여 명이 참석해 재가오계를 수지하며 수행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서원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